

# “전문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편히 쉴 수 있길”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피해장애아동 쉼터 개소 12명 인력 확보·학업지도 등 아동 맞춤 서비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최근 인천시피해장애아동 쉼터(이하 쉼터)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쉼터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이 잠시 머무는 장소다.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한 장소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남·여아동 공간을 분리해 운영한다. 성별 최대 정원은 4명씩, 총 8명이다. 만 18세 미만이면 입소 가능하다.

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최대한 확보했다. 시설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조리사도 별도로 뒤 생활지도원들이 아동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

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상 훈련과 학업 지도, 교육 지원은 물론이고 학대로 인한 신체 손상 응급치료,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무실,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인천시장 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원이 현장으로 나가 학대 정황 등을 확인 후 피해 사례로 판정하면 바로 분리 조치해 쉼터로 인계한다. 최대 입소 기간은 9개월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1년부터 인천시피해장애아동 쉼터 수탁 운영 중이다. 성인 장애

인과 함께 이곳에서 지낸 장애아동이 지난해만 3명이다.

인천시 장애아동 수는 2023년 5월 기준 5,257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많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로 장애아동들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장애아동 쉼터 개소로 우리가 운영 중인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등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장애인 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co.kr



인천시피해장애아동 쉼터 개소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 강화군, 고려궁지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

### 유천호 군수 “군민 여러분 가정 행복 가득하길”

인천 강화군이 구랍 31일 자정, 강화읍 고려궁지에서 제야의 종 타

종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타종 행사에는 유천호 강

화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시의원



유천호(오른쪽) 강화군수 등 참석자들이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 강화군 제공)

을 비롯해 새해 소망 영상 이벤트에 참가한 군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은 사전 행사로 준비된 아가펠라 공연과 대북 퍼포먼스, 체험행사를 즐기며 희망찬 새해를 학수고대했다.

본 행사인 타종 직전에는 군민들이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고, 내빈과 군민들은 총 33번의 타종을 진행했다.

아이와 참석한 군민은 “늦은 시간이지만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라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왔다”며, “우리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유천호 군수는 “올 한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여러분야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 박종효 남동구청장, 이주여성 폭력 방지

### 이주여성센터 ‘살러온’ 등 현장 의견 청취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이주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2일 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최근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속식 등을 제공하는 보호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돕는 그룹홈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돕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구청장은 각 시설의 시설장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주여성 폭력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여성 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이 날날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위해 현재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조속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최일선에서 만나는 현장 활동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립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의 취업 교육 및 취업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득 기자 kjd@hyundai.co.kr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이주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인천 남동구 제공)

## 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례 공유

### 350개 위치 정보 90개 기록 온라인 지도 ‘찾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의 마을교육 관련 공간 정보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사례를 쉽게 공유하는 인천마을교육 온라인 지도 ‘찾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마을교육 지도 ‘찾다’ (ht tp

s://maeulngdo.ice.go.kr)는 우리 동네, 학교 주변의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50여 개의 위치 정보와 90개의 마을 기록을 공유한다. 모바일로도 지원하며 유형별로 마을교육관련 공간의 위치 정보

나 활동 내용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인 우리마을교육자치회, 주말학교, 마을연계교육 과정 운영 사례와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우리동네 이야기를 담은 마을 기록도 공개한다. 우리동네 이야기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인천마을교육 이야기 발굴단 프로젝트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례를 담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찾다’는 마을교육자원 목록을 체계화하고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화한 것이 큰 장점”이라며 “누구나 쉽게 마을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에 홍보하고 인천의 마을교육 관련 공간과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co.kr

## 미추홀구, 갑진년 새해 힘찬 출발 다짐

### 직원 200명 참석 시무식

인천 미추홀구는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갑진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격려사에서 “주민이 원하는 정책, 주민이 필요한 정책을 펼쳐 활기 넘치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참석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시무식을 마쳤다.

한편, 미추홀구는 2024년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주민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건강문화도시, 나눔가 배려의 복도시, 서민경제가 든든한 도시, 공공청사와 수봉공원 스카이라인 조성 신속 추진, 협치 행정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co.kr

## 서구, 경인통계청 협업 영유아통계 공표

### 인구 등 8개 분야 67개 항목·아리둥 4,255명 가장 많아

인천 서구는 구랍 29일 경인지방 통계청과 협업해 작성한 ‘2023 인천 서구 영유아통계’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위 통계는 기존 통계자료 및 행정 자료를 연계·결합한 행정통계로, 인천 서구 영유아의 인구·보건·복지 등 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출산·보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개발했다.

2022년 11월 1일 기준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만0~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구·가구(13개), △인구이동(8개), △인구동향(6개), △경제·주택(10개), △건강(10개), △복지(6개), △보육·교육(9개), △안전(5개) 등 8개 분야와 67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인천 서구의 영유아 인구는 전체 인구 58만1069명 중 2만7044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지역별 영유아 인구는 아라동 4,255명(15.7%)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2동이 183명(0.7%)으로 가장 적었다.

육아유지 초회 수급자는 1,811명으로 전년(1,641명) 대비 10.4% 증가했고, 지급액은 107억 4,900만원으로 전년(82억 2,100만원) 대비 30.7% 증가했다.

서구 어린이집은 392개소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4,546명으로 나타났다. 서구 유치원 이용 아동은 8,623명으로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5,869명)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인혜진 기획예산과장은 “생산된 지역통계가 보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 홈페이지(행정공개→행정정보→통계자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angy18240@naver.com

## 연수구 새마을지도자 대회, 지난해 마무리

### 사회적 갈등 원인 분석 등

연수구 새마을회는 구랍 29일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연수구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며 의미 있는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구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환경개선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정립 등의 주제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의 사업실적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세대 간, 계층 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향후 건강하고 행복한 연수구 만들기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김진태 연수구 부구청장은 “올 한 해도 지역의 일꾼으로 솔선수범하며 숨없이 달려온 지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새마을운동과 그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co.kr

편집·정대정 기자 jae@